

제 목	국 문	의료보험 재정조정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영 문	The Improvement of National Method of Financial Adjustment Program in Medical Insurance Schem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윤성태 ¹⁾ , 김한중 ²⁾ , 유승흠 ²⁾ , 손명세 ²⁾ , 윤완섭 ¹⁾ 1) 의료보험연합회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Sung-Tae Yoon ¹⁾ , Han-Joong Kim ²⁾ , Seung-Heum Yu ²⁾ , Myung-Se Sohn ²⁾ , Woan-Sub Yoon ¹⁾ 1)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2)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윤완섭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재정조정사업의 현황 및 그 실적을 분석하고, 둘째, 보험 종별의 재정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의료보험 구조적 요인들을 구명하여 보험종별 내의 합리적 보험자 분류법을 모색하고, 셋째, 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재정조정 사업의 수입 및 지출 조정방법에 따른 모형을 설정한 후, 넷째, 각 모형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재정이전효과 및 보험료 부담수준의 형평성 등을 비교 평가 분석하여 선택 대안 및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의료보험 보험자이며, 연구대상은 전국 373개 의료보험 보험자의 보험재정이다. 각 보험자의 보험재정 급여비 지출 비용중 고액급여비와 노인 입원급여비에 대하여 재정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두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자료수집은 95년도 전국 373개 보험자의 결산서 또는 가결산서에 의한 일반현황, 재정결산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91년-95년까지 재정조정사업 실시자료를 추가하였으며, 지역보험의 관할지역 면적은 한국통계연감에 의하였으며, 모의실험은 96년 자료를 기본으로하여 97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분석·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 1) 전국 보험자의 재정지표를 직장공동조합, 직장단독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군조합, 시조합, 구조합별로 비교해 보면, 심한 재정 격차는 급여비 지출 격차보다 주로 보험료 수입격차에서 비롯되고 있었으며, 급여비 지출격차는 군 조합이 다른 종별 보험자에 비해 보험급여비 지출이 높았다.
- 2) 보험자구분을 관행적 구 시군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거 집락분석법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보험자의 재정적 특성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였다.
- 3) 재정조정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4개의 개선모형을 설정하였다. 제 1모형은 현행과 같은 각출 및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안과 비교하기 위한 모형이며, 제 2모형은 형평계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며, 제 3모형은 형평계수의 개선과 함께 보험자의 재분류 결과에 의거 분류·할당하는 방식이며, 제 4모형은 제 3모형에서 재보험급부의 교부기준 중 노인급여비 기준을 전국 건당 평균금액으로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 4) 현행 안과 개선 안중 어떤 방법이 보다 합리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 실험한 결과는 각출액 할당에 있어서 새로운 형평계수, 보험자 재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재보험 급부비 교부시 균등성 원칙에 의거 노인급여비 배분기준을 전국 건당 평균액으로 개선하는 방식인 제 4모형이 재정이전효과 및 이전액 규모, 재정력 집중도 및 역진도 분석평가에서는 제 3모형과 비슷하거나 농어촌 지역조합으로의 재정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었다.

4. 고찰

이 연구의 결과로 우리나라처럼 소득파악율과 노정율이 불균형한 사회 경제 여건 하에서는 임금소득자와 비임금 소득자를 공통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다요소방식의 구조적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실증해 보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의료보험에서 재정조정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보험자간 재정력의 형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자간 보험료 부담률의 상대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의료보험의 균형발전과 정체 차원에서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